한·미 "北 6자회담 거부 땐 5자회담"

국제사회 '북 6자회담 복귀' 고강도 압박 가속화

미사일 추가 발사시 안보리 제재 본격 거론될 듯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유엔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북한을 6자회담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은 17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이 틀속에서 북미간 양자접촉을 통해 현안들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으나 북한이 끝내 이를 거부할 경우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참여하는 5자회담을 추진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일본 등 G8(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들은 이날 북한에 대해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와 9·19 공동성명 이행, 모든 핵무기 및 기존 핵프로그램의 포기를 촉구한 이틀전 안보리 결의안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해제를 6자회담 복귀의 선행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안보리 결의안을 정면으로 거부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6자회담이 열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북한은 오히려 국제사회 압력에 굴복하는 모양새로 비쳐지는 6자회담 복귀보다는 미사일 추가발사 카드를 만지작거릴 개연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어서 5자회담 카드에 무게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G8 정상들은 정상회의 폐막 성명에서 "미사일 발사는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키는 만큼 북한은 미사일 발사유예 규정을 준수하고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며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와 9·19 공동선언 이행을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북한의 최대 우방인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촉구, 북한의 적극적인 태도변화를 주문했고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북한은 유엔의 결의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며 가능한 한 빨리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아울러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후 첫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열고 북한의 거부로 6자회담이 장기간 열리지 못할 경우 6자회담의 모멘텀 유지를 위해 5자회동을 추진키로 했다.

유엔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에도 불구, 미사일 추가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 헌장 7장에 따른 안보리의 무력 제재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고이즈미, 좀 점잖으시오"

G8 정상들, 튀는 행동 눈길

부시 발언도 도마 위에

17일 폐막된 G8(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의에서는 그 성과 보다 조시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정상들의 거침없는 직설화법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튀는 행동'이 관심을 모았다.

▲무대에서 갑자기 댄스=퍼포먼스를 즐기는 고이즈미 총리는 연일 튀는 행동으로 일본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고이즈미 총리는 15일 비공식 만찬 도중 러시아 민요가 흘러 나오자 갑자기 무대로 올라가 춤을 췄다. 이를 본 부시 대통령은 "워싱턴에서도 그랬고 멤피스에서도 그랬지만 고이즈미 총리는 언제나 '좌중을 지배한다'"면서 "고이즈미 총리, 좀 얌전히 계시는 게 좋겠소"라고 농담섞인 충고를 던졌다.

이에 고이즈미 총리는 "부시 대통령도 같이 추지 않았느냐"고 받아쳤다.

▲부시 점잖지 못한 발언 도마에=부시 미국 대통령은 17일 폐막 오찬 중 "헤즈볼라의 형편없는 짓거리"등 점잖치 못한 발언을 했으며 이 발언이 마이크로폰을 통해 옆자리까지 '생중계'됐다.

부시 대통령은 블레어 영국 총리와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문제에 대해 대화하던 중 그는 즐겨 사용하는 어법인 "아시다시피(See)"라는 말을 써가며 헤즈볼라 등 이슬람 무장세력과 이들을 지원하는 시리아에 "진절머리 난다"고 말한데 이어 유엔에 대해서도 "좌절감을 느꼈다"며 불편한 심사를 표출했다.

G8 정상회담에 참석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17일 회의장에 도착한 뒤 비가 내리자 경호원이 받쳐주는 우산을 기다리지 않고 쏜살같이 실내로 뛰어 들어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디스커버리호 무사귀환

NASA "휴…"

미국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가 17일 플로리다주(州)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센터로 무사히 귀환하자 항공우주국(NASA) 관계자들은 기뻐하면서도 한숨을 돌려야 했다.

디스커버리호 외장 단열재 문제가 발사 순간까지 안전에 확신을 가질 정도로 해결되지 못한 상태였고 따라서 이번 발사는 마이클 그리핀 NASA 국장이 행한 일종의 '도박'과도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리핀 국장은 디스커버리호 착륙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주왕복선 사업이 "제 궤도를 되찾았다"면서도 "부담이 완전히 가셨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간의 정기적인 우주비행'이라는 말에 포함된 단어들이 아직까지는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비행은 아직 실험 단계"라고 덧붙였다.

우주왕복선 동체 외부 단열재의 비행 중 이탈 가능성은 발사 1개월여 전인 지난 6월에도 발사 여부를 결정짓지 못할 정도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됐었다.

NASA는 발사 직전까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고 일부에서는 발사 뒤 문제가 발생하면 승무원들을 국제우주정거장에 대피시킨 뒤 다른 우주왕복선을 올려보내 승무원들을 귀환시킨다는 계획까지 제시됐었다. /휴스턴AP·로이터=연합뉴스

18일 강력한 지진과 쓰나미가 덮친 인도네시아 자바섬 서부 팡안다란 해안 주택 잔해 속을 한 여성이 지나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印尼 또 쓰나미 강타…사망·실종 450여명

인도·호주 일부 섬, 지진해일 경보

인도네시아 자바섬 남부 해저에서 진도 7.7의 강진이 발생한 뒤 약 3m 높이의 쓰나미가 해안을 덮쳐 18일 오후 현재 35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지 메트로 TV는 최악의 피해를 입은 자바섬 서부 팡안다란 해안에서 37명이 사망했으며 서부 및 중부 자바섬 해안지역에서도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실종자도 100여명에 이르는 가운데 이들 중 15명은 팡안다란 부근 누사캄방안 교도소 재소자라고 TV는 전했다.

이날 쓰나미로 도로 곳곳이 유실되고 전력 공급도 끊겨 정확한 피해규모가 집계되지 않고 있어 희생자 수가 더 늘어날 게 확실시된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인도네시아 기상청은 인도양 해저 33㎞ 지점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으며 잇단 지진의 영향으로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 자바섬의 해변을 덮쳤고 호텔이 파괴되고 가옥들이 휩쓸려 떠내려 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고 발표했다.

하타라자사 인도네시아 교통장관은 자바 남부 해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내륙쪽으로 대피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지진으로 자바섬과 수마트라섬, 인도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 호주의 크리스마스섬, 코코스섬에도 지진해일 경보가 내려졌다.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Ring OF Fire)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하고 있어 세계 최대의 지진 다발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다. 앞서 지난 5월에도 자바섬 족자카르타에서 강진이 발생, 6천2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카르타AFP=연합뉴스

中 상반기 10.9% 성장…추가 긴축 예고

중국의 올해 2.4분기 경제성장률이 11.3%를 기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8일 2.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작년동기대비 11.3%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분기기준 지난 10년래 가장 빠른 성장세다.

중국은 지난해 9.9% 성장에 이어 올 1.4분기 10.3%, 2.4분기 11.3% 성장세를 보임으로써 올해 상반기 성장률이 10.9%를 기록했다.

중국이 상반기 금리인상 등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2.4분기 성장이 더욱 확대됨으로써 향후 과열억제를 위한 추가긴축이 예상된다.

국가통계국 정징핑 대변인은 중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 붐과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는 신규대출을 억제해야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상반기 전체로는 1.3%가 올랐지만 2.4분기에 1.4%, 특히 6월에는 1.5%가 올라 인플레이션 우려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상하이=연합뉴스

치매! 발병 10년전부터 체중 서서히 줄어

치매의 첫 신호인 기억력저하가 시작되기 10년전부터 체중이 점점 줄기 시작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메이요 클리닉 신경과전문의 데이비드 노프먼 박사는 17일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열리고 있는 제10회 치매 및 관련질환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1990~1994년 사이에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560명과 치매가 아닌 같은 연령대의 다른 환자들의 장기간 체중변화를 비교분석한 결과 치매환자는 체중이 서서히 줄어든 반면 대조군 환자들은 체중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것으로 헬스데이 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